

2015년 12월 24일

# 보도참고자료

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 
주십시오.

제 목 :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운영체계 개선 관련 참고자료

“붙임 참조”

문의처 :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정책연구부 정책제도연구팀 팀장 김병기, 차장 최영주

Tel : 759-4941, 4997 Fax : 759-4500 E-mail : yjchoi@bok.or.kr

공보관 : Tel (02) 759-4016, 4028

“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bok.or.kr>)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.”



**한국은행**  
THE BANK OF KOREA

<붙임>

## 1.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운영체제 개선

- 현재 연간 금통위 정기회의 24회중 12회가 통화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회의인데 이를 2017년부터 연 8회로 조정\*하고 4회를 금융안정 관련 회의로 대체

\* 6~7주 간격 개최 방식 고려중

- 회의 운영체제 개선을 통해 통화정책 결정의 유효성을 높이는 한편 금통위가 금융안정 상황을 정기회의에서 정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

— 이는 통화정책 수행 시 금융안정에 유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국은행법 취지와도 부합

- 이에 따라 금융안정 관련 회의를 포함하여 연간 금통위 정기회의는 현행대로 24회 개최

- 경제여건 급변 등으로 정책대응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\*하여 유연하게 대처 가능

\* 금통위 임시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 가능(한은법 제12조)

- 한편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앞두고 현재와 같이 경제상황 점검회의, 동향보고회의를 개최(각각 연 8회)

- 이와 별도로 금융·경제 상황 관련 주요 현안을 토의하는 위원협의회는 현재와 같이 매주 1~3회 수시 개최(연간 100회 이상)

## 2.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개최 횟수 조정 배경

- ◆ 파급시차를 고려한 중기적 시계의 통화정책 수행 기반 마련, 경제 전망과 통화정책방향 의사결정 간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해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개최 횟수를 연 8회로 축소

### ( 통화정책 결정의 적정 시계 확보 )

- 통화정책 파급시차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보다 긴 시계에서 미래지향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를 도모
  - 일반적으로 통화정책 결정의 주된 고려사항인 경기, 물가 등 실물경제 상황은 완만하게 변화하는 데다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데에도 상당한 시차가 존재
  - 현재와 같이 매월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방식 하에서는 변동성이 큰 월별 경제지표의 움직임에 금융시장이 과민반응하면서 불필요한 정책 기대가 형성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점도 고려

### ( 경제전망과 기준금리 결정회의 의사결정 간 연계성 강화 )

-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개최 시기를 경제전망\* 및 중간점검 시점에 맞추어 통화정책 결정이 경제전망과 전망경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수행 여건 구축

\* 현재 연 4회(1, 4, 7, 10월) 발표

- 경제전망 등을 기초로 통화정책 파급효과를 중간 점검 또는 확인하면서 경제지표 변화를 바탕으로(data-dependent) 통화정책방향을 결정
- 경제전망과 중간 점검 결과에 대한 인식을 경제주체와 공유함으로써 통화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

(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국제적인 最適慣行에 부응 )

-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개최 주기를 주요국 중앙은행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통화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외 경제여건 변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확보
- ECB, 영란은행, 일본은행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미 연준과 같이 연 8회로 축소하여 개최함에 따라 연 8회 개최가 국제적인 기준으로 정립되는 추세\*

\* <참고> 「각국 중앙은행의 연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개최 횟수」 참조

- 우리나라가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통화정책 운용 시 주요국의 통화정책방향 결정내용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

### 3.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 방안

- ◆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개최 횟수 조정과 함께 의결문 기술 및 동향 자료 공개 방식을 개선하여 정책결정 배경에 대한 설명을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경제전망의 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

#### (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및 동향 자료 개선 )

- 성장,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한편 금융안정에도 유의하기 위한 통화정책 운영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수행
- 정책결정 배경에 대해 보다 명확히 설명하도록 의결문의 내용, 기술방식 등을 개선
- 금융시장 참가자 등 일반 경제주체가 통화정책 결정의 배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 결정회의 전후 공개되는 「국내외 경제동향」 및 「금융시장 동향」의 내용 및 기술 방식을 개선하고 자료 공개 범위를 확대

#### ( 통화정책 방향 결정과 경제전망 간 연계성 제고 )

-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의사결정과 경제전망 간의 연계성이 실효성 있게 높아질 수 있도록 경제전망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
  - 주요국 중앙은행의 경제전망 체계, 경제예측모형 등을 참고하여 경제전망의 정도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현실 설명력이 높은 모형의 개발·운영을 위한 연구를 꾸준히 추진

- 모형이나 통계지표로 파악하기 힘든 현장의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및 세미나 개최 등 의견교환 채널을 더욱 활성화
- 경제전망과 기준금리 결정 간 연계성 제고 방안 검토

( 금통위와 금융시장 간 커뮤니케이션 강화 )

□ 금통위와 금융시장 간 소통 기회의 확대 추진

- 주요 금융·경제 이슈에 대한 금통위원의 공개 강연, 기자간담회 등 금통위와 금융시장 간 소통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
- 강연 내용, 일정 등 금통위원의 정책 관련 활동내역을 홈페이지, 소셜 미디어,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 추진

□ 통화정책방향 의결시 소수의견 제시 금통위원의 실명을 회의 당일 공개

< 참고 >

각국 중앙은행의 연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개최 횟수

개최 횟수	국가	
연 4회	· <u>스위스</u> ·중국(4회 이상)	· <u>대만</u>
연 6회	· <u>스웨덴</u> ·인도 ·남아공	· <u>노르웨이</u> ·말레이시아
연 8회	· <u>미국</u> · <u>일본</u> <sup>3)</sup> · <u>캐나다</u> · <u>체코</u> ·러시아 ·멕시코 ·필리핀	· <u>유로지역(ECB)</u> · <u>영국</u> <sup>4)</sup> · <u>뉴질랜드</u> · <u>아이슬란드</u> · <u>브라질</u> · <u>태국</u>
연 12회	· <u>호주</u> (11회; 1월 제외) · <u>폴란드</u> (11회; 8월 제외) ·터키 ·콜롬비아 ·인도네시아	· <u>이스라엘</u> · <u>헝가리</u> · <u>칠레</u> · <u>페루</u>

주: 1) OECD 회원국 및 핵심협력국(key partners; 브라질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남아공) 등 30개국 기준  
 2) 밑줄은 IMF 분류기준 선진국(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분류)  
 3) 2016년부터 연 8회로 변경할 예정  
 4) 2016년 9월 이후 도입 예정(2016년 11회, 2017년 이후 8회)